면에 처해있

# 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Ⅰ. 서 론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시작된 우리경제는 주식시장의 혼란, 기업부도의 증가, 고용불안 및 실업율 증가, 법인과 개인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어졌다. 이로 인하여 IMF의 개입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 여파가 결국 지역경제에 현재화되어 지방의 건설 및 투자사업의 위축 등 경기침체, 금융경색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다 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파트너쉽을 갖고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정지원 노력을 통하여 정책 방향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보다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의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지역활성화 사례,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지원 사례, 지역활성화에 있어서의 접근방법,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령화사회의 상점가활성화 등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Ⅱ. 일본의 지역경제활성화 사례

## 1. 일본의 공공벤처펀드 조성과 벤처육성

### 가. 지역경제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구축 및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의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지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망벤처기업육성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시책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담보력이 없는 유망벤처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한 펀드조성의 경우는 펀드자체의 공신력 확보 및 투자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및 보증의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순수도비로 벤처기금을 조성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최종연구를 합동발표회 및 전시회를 대학별로 순번제를 지정하여 발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의 경우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

**<표1> 각시도 벤처펀드 조성 현황**

| 구분 | 조합명 | 운용회사 | 펀드조성금액(억) | | | 조성기간 | 투자현황 | |
|---|---|---|---|---|---|---|---|---|
| | | | 계 | 시도 | 기타 | | 업체수 | 금액 |
| 부산 | 부산벤처1호 | KTB-network | 60 | 테크노파크(10) | KTB(40)<br>시민공모(10) | 2000. 04 | 4 | 18 |
| 대구 | 대구벤처펀드 | 인사이드벤처 | 57 | 테크노파크(10)<br>시출연료(10) | 인사이드벤처(10)<br>대구은행외 4개기관(27) | 1999. 05 | 10 | 35 |
| 대전 | 대덕벤처1호 | KTB-network | 100 | 중소기업지원센터(20) | KTB(65)<br>충청하나은행(15) | 1999. 12 | 6 | 45 |
| 경기 | 경기벤처펀드1호 | 산은케피탈 | 120 | 중소기업지원센터(50) | 경제단체(20)<br>산은케피털(50) | 1999. 12 | 25 | 120 |
| 충남 | 충남벤처투자조합 | (주)신보창업투자 | 100 | 테크노파크(30) | 중소기업진흥공단(30)<br>충청하나은행외 2개기관(40) | 2000. 07 | 10 | 40 |
| 경남 | 경남벤처펀드1호 | KTB-network | 50 | 경남신지식육성재단(10) | KTB(40) | 2000. 11<br>2000. 03 | | |

자료: 인천발전연구원 벤처펀드조성관련 타시도 출장보고서

여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벤처펀드를 최초로 조성한 전북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

### 나. 일본의 벤처육성 자금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일본의 경우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과 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사업운영분야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경영노하우, 사업자금, 설비투자, 운전자금, 세제 등의 지원이 있다.

둘째, 기술 및 연구개발분야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설비투자사업화 자금, 기술지원, 지원기관지원 등의 지원이 있다.

셋째, 인재 및 고용분야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인재확보를 위해 채용활동, 환경정비 등의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인재고도화 지원 등이 있다.

넷째, 기타 간접지원 분야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정보제공, 코디네이트활동, 인재 및 기술메칭 등의 지원이 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벤처기업 지원이 각 부서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효과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998년 2월 벤처기업을 위한 민·관 각 기관 및 단체가 제휴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능력개발기구, 중소기업종합사업단, 통신방송기구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출촉진법(벤처펀드에 출자), 산업기반정비기금, 엔젤세제(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등이 벤처기업 관련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大阪(오사카)시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이상에서 제시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외에도 다양한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개업지원특별대부, 신사업육성지원융자, 신산업창조지원자금융자, 이노베이션21, 성장사업육성특별융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지역중소기업활성화대부, 벤처서포트론(벤처지원융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후루사토융자제도 및 시민뱅크제도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활성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자금융통이 큰 문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후루사토융자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시민뱅크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에 있어 바람직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많은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시민뱅크제도란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취미, 유통 등의 생활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이나 환경보호, 유기농업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사업을 지향하는 시민, 단체에게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민뱅크는 1989년 4월 동경도에 있는 永代신용조합과 시민사업의 연구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행하는 ㈜프레스 올터너티브社가 제휴해서 설립했는데, 시민뱅크는 융자뿐만아니라 상담, 정보, 노하우의 공유, 구인, 구직, 교류사업 등의 기능을 통해서 사업상호간의 자립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민에 의한 사업은 지역사회 속에서 주부그룹이나 볼란티아단체등이 그 활동을 자립시키는 형태로 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수천단체가 시민뱅크를 통해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어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후루사토융자(지역가꾸기융자)제도는 1988년 12월 다케시다(竹下)내각의 후루사토창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자치성, 대장성이 공동협력하여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익법인으로서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지역종합정비재단(후루사토재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설비자금의 20%를 상한으로 장기무이자을 대부해 주고 있는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의 발행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고 이자의 지불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에 의해 보전되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설비자금은 금융기관이 협조융자하고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적 구축에 의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3. 異業種네트워크에 의한 지역활성화

### 가. 榛名지역가꾸기네트워크 구축배경

榛名町(하루나마찌)는 농산촌지역으로서는 도시에 가깝고 농축산 및 관광 등 지역활성화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에 인접한 지역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활력이 저하하기에 이르렀다. 인접도시로 통근자가 증가함으로서 농축산 및 관광업의 휴계자는 감소되고 이로써 지역

고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당시 하루나마찌는 문화시설이 없고 본격적인 콘서트나 연극을 상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지역의 일부 시민이 힘을 모아 향후 문화회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이해하는 청중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인식하고 「생음악을 듣는 회」 모임을 만들었다.

동 모임에서 공민관, 노인홈의 식당, 민가의 응접실, 야외광장 등 지역의 여러 장소를 이용하여 12년간 50여회나 음악회를 개최하여 참가자가 3,500인에 달했다. 이 활동은 그 후 종합문화회관을 건설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제 개최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활성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해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활동은 음악이라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미술이나 문학 등 지역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나마찌에서 추진되었던 「생음악을 듣는 회」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특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좋은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나아가 이업종교류를 특색으로 한 지역가꾸기단체인 하루나지역가꾸기네트워크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는 「생음악을 듣는 회」의 활동을 계기로 지역유지가 하루나포럼을 조직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는데, 보다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림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가꾸기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되었다.

지역가꾸기네트워크는 관과 민이 융합하고 다양한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한 주민, 대안을 실행하고 싶은 주민이 대표가 되어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성원을 모집하여 실천해 가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즉, 하루나지역가꾸기네트워크의 최대의 특색은 민관이 일체가 되어 이업종교류가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업종간의 연계를 강화하게 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이해나 의식개혁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루나지역가꾸기네트워크는 행정이 추진하는 공익에 기초하여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민간이 지역의 다양한 욕구나 과제에 대해 생각이나 이념을 공유하고 입장이나 이해를 초월한 이업종의 멤버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활동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근지역과의 연대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둘째, 경관가꾸기 활동으로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보전과 정비의 추진. 셋째, 정보발신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역관광지도 작성, 인터넷 및 미니FM에 의한 정보의 제공. 넷째, 지역자원의 재검토나 기존 숙박

시설, 레크레이션 거점의 재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시설의 확충 및 재편성. 다섯째, 농산물의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의 계획적 배치와 문화, 체험시설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브랜드이미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요 실천사업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국 어린이 장기 자연체험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자연체험활동, 농림업체험활동, 생활체험, 창작활동 등이다. 둘째, 삼림정비촉진사업을 들 수 있다. 셋째, 환경보전촉진사업을 들 수 있다. 하천의 자연환경보전 청소활동, 낚시인에 대한 환경보호계발활동, 볼란티어참가자의 인재육성과 조직화, 청소년야외활동 지도, 지구환경보호나 자원의 유효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사이클할 수 있는 상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 4. 내발적발전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기술, 정보 등 각종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분권화가 더욱 진전되면 지역발전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발적발전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대부분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체로 중앙정부에 의한 외래의존형 개발방식이 주축을 이루었다. 외래의존형 지역산업정책은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부로부터 유치 내지는 진출한 기업의 경우는 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하며 관련자회사를 거느리고 거래를 하게 되어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과의 산업연관을 구성하기 어렵다.

둘째, 기업의 이익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 등 지역 밖으로 유출하여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대부분의 외래형 개발은 환경파괴형이며 그 지역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나 지역고용 등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이 낮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을 정비할 수는 있어도 기업의 진출이나 이탈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사로서 계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역산업정책의 기본은 외래형 개발에서 내발적발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내발적발전론은 선진공업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구축된 근대화이론에 대항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 내발·자생적인 발전을 이론화한 것으로 1970년대에 제3세계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원래 내발적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이라는 말은 스웨덴의 더그해머숄드(Dag Hammarskjold)재단이 국제연합경제특별총회(1975년)의 보고에서 「또 하나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을 때, 그 속성

의 하나로 「내발적」이라는 말을 제기했던 것이 최초로 인식되고 있다. 더그해머숄드 재단이 제기한 「또 하나의 발전」이란 왜곡된 발전(maldevelopment)을 가져온 종래의 경제우선형 발전에 대신하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발적발전론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하면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타율적 발전 혹은 중앙집권적 발전을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경제사회구조하에 각각의 지역의 내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해 간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발전의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을 발전의 단위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민이 생활과 발전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보다 적은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지역레벨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추구해야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사상 및 구조에 덧붙여 의·식·주·의료·교육 등의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함으로서 모든 인간은 개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을 궁극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내발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大分縣의 일촌일품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가 湯布院(유후인)町로서 湯布院町은 대기업에 의한 관광개발이나 골프장 건설에 주민이 반대하고, 지역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온천을 이용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온천보양지 건설에 성공한 경우, 大分縣의 大山(오야마)町도 지역활성화의 좋은 사례지역으로 꼽히는데, 大山町은 1961년부터 제1차로 시작된 NPC(New Plums Chestnuts)운동으로 유명한데, 당시 농업기본법의 통과로 쌀과 보리 증산에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쌀, 보리농업에서 매실, 밤 등 과수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지역활성화를 자주적으로 추진했던 사례이다. 그리고 겨울에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냉지이면서도 町營 와인양조업에 의해 과소를 극복한 北海道의 池田町, 山林이 80%이상을 차지하고 耕地는 10%도 안되는 곤란한 생산조건 속에서도 다품종소량의 고차원농업을 확립한 大分縣의 大山町, 愛知縣 足助町에서 보여지는 베짜기, 숯굽기 등을 노인으로 하여금 재현시킨 '三州足助屋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발적인 지역활성화의 성공적인 경험은 하나 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 기술, 산업, 문화를 토대로 한 착실한 발전을 지향하고 주민의 학습으로 경영하는 개발사업. 둘째, 환경보전의 틀 속에서 개발을 행하여 지역의 자연, 경관, 쾌적한 생활환경(amenity)을 보전하면서 다음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발사업. 셋째, 지역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결합한 산업관련구조를 형성하고, 산출된 이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질 높은 경제구조를 조성. 넷째, 주민참가의 제도하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을 지향한다는 점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Ⅲ. 기타 외국의 지역경제활성화 사례

### 1. 미국의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지역재생

지역활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지역재생의 사례로서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아시가 워터프론트개발의 성공사례 지역으로서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시와 나란히 유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볼티모아시가 일약 더욱 유명해 진 것은 워터프론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걸쳐 일관하여 민관파트너쉽을 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볼티모아시는 1950년대 이후 수도 워싱턴경제권의 확대에 의해 교외로의 인구이동이 시작하여 지역경제가 정체하기 시작했다. 정체하는 도시를 부흥시킨 것이 볼티모아시의 중심부인 찰스센터 재개발로 시작된 볼티모아시재개발 30년 프로그램이다. 30년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유인한 것이 민관파트너쉽이다.

볼티모아시의 지역개발 계획은 원래는 민간의 비즈니스커뮤니티가 선도한 것으로 민간비영리회사인 찰스센터와 인너바바메니지먼트사가 매년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민관파트너쉽의 발상은 극히 단순하여 관료는 유능하지만 비즈니스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관의 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현함으로서 계획은 매우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협력체계는 시, 민간기업의 책임자, 개발업자 3자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재개발계획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은 볼티모아시와 비즈니스커뮤니티 상호 공통하는 목표를 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찰스센터와 인너버버메니지먼터사는 첫째, 민간기업으로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둘째, 동사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볼티모아시는 개발정책을 컨트롤하고 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업무분담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를 취했다.

다시 말해서 찰스센터와 인너버버메니지먼터사는 실질적으로는 시의 일부이면서 필요에 따라 민간으로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업자가 볼티모아시의 계획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메니지먼트사가 업자의 생각에 동의한 경우에는 업자를 대신하여 메니지먼트사가 시와 교섭을 하여 조정한다. 동사는 개발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시와 개발업자와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볼티모아시는 비영리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메니지먼트사의 제언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자금면에서는 볼티모아시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4분의 3이 민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이 관에 의한 것(이 중 17%는 연방정부의 그랜트)이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민간의 역할은 크지만 관의 자금이 없으면 볼티모아시의 지역진흥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볼티모아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연간 8백만인이 방문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볼티모아시의 30년 장기간에 걸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배운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협력의 결과인 시의 재개발에 대해 30년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도시재개발의 특효약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컨셉 및 구체적인 계획은 민관의 컨센서스를 얻은 강력한 것이었다는 점과 개발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볼티모아시의 민관협력이 성공한 것은 도시재생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즉,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로서 추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성과를 타나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 2. 영국의 고령화시대 상점가활성화 시책(shop mobility)

### 가. 의의 및 배경

영국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상점가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샵모빌리티(shop mobility)로 명명되고 있는데, 고령자나 장애자 등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대여하고 그들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상점가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여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한 사례가 주목을 받아 1999년 9월 현재 23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샵모빌리티제도는 쇼핑뿐만 아니라 병원, 관공서, 도서관의 방문 등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료는 대체로 무료이다.

샵모빌리티 설치배경에는 거리의 중심부가 보행자 전용도로화되어 자동차정차위치와 목적지와의 사이에 이동거리가 길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를 배려하여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휠체어를 이용함으로서 이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이동할 수 있어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입지 및 제공서비스

샵모빌리티는 상점가에 인접한 주차장 부근에 입지하고 있다. 이용자의 70%가 자신이나 개호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차에 의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자 이동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나아가 휠체어 등의 대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볼란티어의 에스코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자동차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46%가 61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나고 있다. 50세 이하의 이용자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자를 포함하여 이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모두가 이용자가 되고 있다.

### 다. 운영형태

운영형태는 독립한 자선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5%, 상점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전체의 88%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운영비(시설운영공간이용료를 제외하고 연간 평균 약 5,500만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상점가, 이용자로부터의 기부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시설운영 공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주차장이용 회사 혹은 상점가의 빈점포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상주직원 1인이 있고 에스코트는 볼란티어가 담당하고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곳이 많다.

### 라. 샵모빌리티 도입 효과

영국의 샵모빌리티의 도입은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지역활성화 대응방안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영국내에서는 활발히 전개되어 상점가의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샵모빌리티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자, 장애자의 자립을 들 수 있다. 영국자동차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99%가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립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둘째, 상점가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샵모빌리티의 도입에 의해 고령자, 장애자라는 신규고객을 확충하게 되어 상점가의 매상을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개호자, 동반자를 포함하면 년간 300만인이 샵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고 평균 1회의 방문당 약 9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샵모빌리티 이용자는 빈번하게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목적의식이 강하고 1회당 지출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망한 고객인 셈이다. 실제 샵모빌리티 개설후 런던 북부의 바튼지역에서는 쇼핑센터의 연간매상이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코스트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샵모빌리티 도입에 의해 고령자, 장애자의 자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자력으로 외출하게 되면 사회코스트의 감소에도 공헌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왕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통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점심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외출하여 외식하게 되면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상당부분 억제

되게 된다.

넷째, 개호자의 부담 감소를 들 수 있다. 장애자가 스스로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호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이용자간 및 세대간에 있어서 교류가 촉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간의 교류를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행, 영화감상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곳도 많다. 또한 샵모빌리티 시설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간에 대화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곳도 많다. 게다가 이용자(특히 고령자)와 에스코트(젊은 볼란티어)와의 교류를 통하여 세대간의 교류도 촉진되고 있다.

## Ⅳ. 맺는말-시사점

우리 나라의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경제를 둘러싼 우리 나라의 경제, 행정 및 재정, 조세제도, 주민의식 등 총체적인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개 시책 하나에 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종합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접근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경우, 본고에서 검토한 외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례는 향후 우리 나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유익한 사례가 될 것이며,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첫째, 지역경제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벤처펀드조성 등 다양한 재정 및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사업자금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후루사토융자제도 및 시민벵크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업종을 종합하여 이업종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활성화를 기한 사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주민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이를 통한 민관의 협력관계 형성 등이 주목되고 있다. 즉,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지역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이 지역가꾸기에 참가하는 프로세스를 제외하고서는 지역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하루나마찌의 이업종네트워크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에서는 지역활성화 및 지역개

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외래형개발방식에서 내발적발전 방식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개발에 대한 사고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 등 각지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내쇼널미니멈(National Minimum)이란 중앙집권적 사상에 의한 지역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로칼미니멈(Local Minimum)의 지방분권적 사상에 의한 지역활성화 개념으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 나라의 지역개발 접근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볼티모아시의 파트너쉽을 축으로 하는 지역재생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종합적이면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개발 및 활성화는 지역을 생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고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볼티모아시의 30년 장기간에 걸친 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 사례는 단지 도시기반의 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샵모빌리티(shop mobility) 도입은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점가의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자의 자립을 돕고 볼란티어 활동을 통하여 세대간의 교류확대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천하고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 나라에서도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西脇由弘, 21世紀を拓く地域活性化政策, 公職研, 1994

鶴見和子外, 內發的發展論, 東京大學出版會, 1991

宮本憲一, 補助金の政治經濟學, 朝日新聞社, 1990

宮本憲一, 地域經濟學, 有斐閣, 1990

西澤正樹外, 地域産業時代の政策, 新評論, 1995

유승우, 농촌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1999

李昌均, 日本地方財政調整制度における集權と分權, 日本 京都大學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93

地方自治職員研修(日本), 公職研, 2000년 8월호, 9월호

地方財務(日本), ぎょうせい, 2000년 2월호